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92 호

2024년 7월 17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Monthly Insights 7 월호 요약
2. TGE Round 5 런칭 조찬간담회 개최 안내(7/25)
3. 아시아&오세아니아 Forward Faster Now 개최 안내(8/5~6)
4. 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안내(9/24)
5. 2024 ESG & 환경 통합실무그룹 2 차미팅 결과(6/28)
6. 2024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BHRA) 프로그램 결과
7. 2024 상반기 ESG 팀장 네트워크 결과(6/20)
8.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AA) 킥오프 및 OT 미팅 결과(6/17)
9. '성평등 증진 및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구축' GEK 웨비나 결과(6/14)
10. 2024년 1 차 ESG 멘토링 결과

■ 본부 소식

1.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 교수 대상 사회책임경영교육원칙(PRME) 상 수여

■ 회원사 ESG 우수사례

[UNGC 회원사 ESG 우수사례] 애큐온캐피탈

■ UNGC & 회원사 뉴스

1. LG유플러스, 재생에너지 전력 중개사업에 뛰어든다
2. 코오롱인더스트리, 온실가스 배출량 10% 감축...대표가 나선 ESG
3. 신세계백화점, 대기업 최초로 '입양 휴직' 제도 도입한다
4. LG전자 차별·괴롭힘·강제노동 금지하는 인권 경영 강화
5. CJ 대한통운, 알루미늄 캔 자원순환 산림청과도 협력...ESG 보폭 확대

■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로고 사용정책
4.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Monthly Insights 7 월호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VOLUME 46 | July 2024
웹에서 보기

Monthly Insights



■ 목 차 ■

1. 탄소중립 전환금융 현황과 기업의 전환계획 수립 방안
2. 전문가 인사이트 : RMI at COP28 -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금융의 중요성'
3. ESG 최신 동향
 - GRI, '고용 관행 및 조건' 주제 표준 개정 초안 발표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공시 규정 제정 이후, 미국의 기후공시 현황 평가
4. 한국협회 소식 | 본부 소식
5.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이번 먼슬리 인사이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미래 달성의 중요한 수단인 전환금융의 현황과 기업의 전환계획 수립 방안을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전환금융의 정의와 대표적인 전환금융 프레임워크의 예시, 전환금융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기업 사례에 대해 살펴봅니다.

3. 기업의 전환금융 접근 방안

A. 신뢰가능한 전환계획 수립

기업은 투자자의 미래지향적 투자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거 배출량 정보 및 탈탄소 현황 공개를 넘어서 신뢰할 수 있는 전환계획을 공개하여 그린워싱 리스크를 줄이고 전환리스크는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전환계획은 배출량감축(기후완화)과 동시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통합적 접근방식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은 'OECD 전환금융 가이드라인(OECD Guidance on Transition Finance)'^[12]에서 제시하는 기업이 전환계획 수립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10가지 요소입니다.

본문을 통해 ▲전환금융의 정의, ▲전환금융의 현주소, ▲기업의 전환금융 접근 방안 등을 알아봄으로써 ICMA, OECD, Asia Transition Finance 등에서 개발한 기후 전환금융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기업의 전환금융 확대 방안과 신뢰가능한 전환계획 수립 방법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전환금융 관련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이니셔티브 및 발간물 소개

A. 지속가능발전(SDGs)을 위한 CFO 연합



<그림 3: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SDGs를 위한 CFO 연합>

기후 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민간 부문의 역할과 재원이 중요해졌으며 이에 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역할과 연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CFO를 통해 기업 재무 전략이 SDGs를 기업 재무전략에 통합하고, 투자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자 CFO 및 고위 경영진, 기업 이사회의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공약이 기업 투자의 토대를 제공하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SDGs를 위한 CFO연합(CFO Coalition for the SDGs, 이하 CFO 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특히 전환금융에서 CFO는 기후투자 및 관련 임팩트를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파트너십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일 기업의 CFO 스스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탄소중립화의 실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SDGs를 위한 CFO 연합'은 CFO뿐만 아니라 선도적 리더 및 금융 관계자, 국제사회 등과 파트너십을 추진하여 CFO가 주도하는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완화 이행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번 먼슬리 인사이트에서 전환금융 관련 이니셔티브인 '지속가능발전(SDGs)을 위한 CFO 연합'을 소개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CFO 를 통해 기업 재무 전략이 SDGs 를 기업 재무전략에 통합하고, 투자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자 CFO 및 고위 경영진, 기업 이사회의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공약이 기업 투자의 토대를 제공하는 중요성에 기반하여 CFO 연합을 설립 및 운영 중입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2023년 12월 6일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의 세션 중 하나인 'RMI* at COP28'에서는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금융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전환금융의 체계화 및 표준화를 통한 전환계획, 그리고 그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세션의 패널토론을 요약·편집하여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Laura Barlow (로라 바로우)

| Barclays(바클레이즈) 지속가능성 그룹장
* 영국 본사 글로벌 금융 서비스 기업



Celine Herweijer(셀린 허바이저)

| HSBC CSO (최고지속가능경영책임자)
* 영국/유럽 최대 금융 기업



Heather Zichal(헤더 지칼)

| JPMorgan Chase(JP모건 체이스)
지속가능성 글로벌 책임자
* 미국 최대 금융 기업

다음으로, <전문가 인사이트>에서는 'RMI at COP28' 계기 개최한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금융의 중요성' 주제의 패널토론을 통해 전환금융에 대한 체계화 및 표준화를 통한 전환계획과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ESG 최신 동향



GRI, '고용 관행 및 조건' 주제
표준 개정 초안 발표

[자세히 보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공시 규정
제정 이후, 미국의 기후공시 현황 평가

[자세히 보기](#)

<ESG 최신 동향>에서는, GRI가 발표한 '고용 관행 및 조건'을 중점 내용으로 표준 개정 초안을 살펴보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 규정 제정 이후, 미국의 기후공시 현황을 평가하면서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 IMF, AI 유발 노동혼란·불평등 증가에 '심각한 우려' 경고

○ 국제통화기금(IMF)이 생성형 인공지능(AI)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대규모 노동 혼란과 불평등 증가가 초래될 수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각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AI로 인해 고숙련 직종에서 일자리가 감소되고, 블루칼라 일자리의 자동화를 촉진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IMF는 각국의 교육과 훈련 정책이 새로운 현실을 반영해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일자리 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IMF는 AI 특별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신 부의 불평등에 대한 대책으로 법인소득세 인상과 함께 자본이득과 이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제안했다.

끝으로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에서는 ▲IMF, AI 유발 노동혼란·불평등 증가에 '심각한 우려' 경고, ▲ESG 정착시키려면..."지속가능성 업무를 전 조직에 할당하라", ▲아이슬란드, 세계 최초 '성평등 채권' 743억 발행...ESG 일환 등 ESG 동향 관련 주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onthly Insights는 회원사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회원사 실무진들에게 발송됩니다. Monthly Insights 관련한 문의 및 제안사항은 gckorea@globalcompact.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조연경 과장, 직통번호: 070-4327-9767)

[자세히 보기](#)

2. TGE Round 5 런칭 조찬간담회 개최(7/25)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기업 내 다양성과 여성 대표성 향상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TGE(Target Gender Equality)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시는 실무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TGE 얼름나이 및 Round 5 런칭 조찬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TGE Round 5 참여 기업의 임원인 TGE 앰배세더와 실무진, TGE 얼름나이를 대상으로 하는 본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런칭한 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기업의 성평등 및 다양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솔루션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나눌 계획입니다.

TGE Round 5 참여사와 얼름나이 간 네트워킹과 교류의 장이자, 각 기업의 여성 리더십 향상을 위한 모멘텀이 될 본 조찬 간담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세션 개요

- 일시: 7월 25일(목), 07:30 - 09:00
- 장소: 롯데호텔 서울 샤롯데(36F)
* 상세 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 30
- 대상: TGE Round 5 참여사 실무진, TGE 3-4 얼럼나이
* Round 5 참여사의 경우, TGE 앰배세더로서 기업 임원 참석 권장 (향후 워크숍은 실무진 참여)

| 등록 안내

- 참여 방법: 아래 '참석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 기한: **7/10(수)까지**

|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07:30 - 07:35	5'	환영사
07:35 - 07:40	5'	TGE 소개 영상 상영 'What is Target Gender Equality?'
07:40 - 07:45	5'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및 TGE Round 5 소개
07:45 - 07:50	5'	TGE 참여증서 세레모니 및 기념사진 촬영
07:50 - 08:10	20'	인구 대전환기, 기업 성평등 추진의 중요성과 역할 김영미 동서대학교 교수(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08:10 - 08:30	20'	TGE Alumni 토크콘서트
08:30 - 09:00	30'	조찬 및 네트워킹

* 상기 일정은 진행 준비 중 변동 가능

문의 : UNGC 한국협회 조연경 과장

Tel. 070-4327-9767 E-Mail. ykcho@globalcompact.kr

* 본 행사는 TGE Round 5 및 TGE Round 3~4 참여사 대상 진행됩니다.

자세히 보기

3. 아시아&오세아니아 Forward Faster Now 행사 개최 안내(8/5~6)



UNGC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15개 지역협회와 협력하여 주최하고,
UNGC 말레이시아 및 브루나이 지역협회가 주관하는
'Forward Faster Now | 아시아 & 오세아니아'는
오는 8월 5~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UNGC 지역 플래그십 행사 일환으로 개최됩니다.

민간, 정부, 기업의 지속가능성 이슈 실무자 및 전문가, 아시아 & 오세아니아 지역
UNGC 지역협회의 리더들이 모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기업의 의지를 더욱
증진하고, 지금까지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며, 목표와 이행사항의 격차를 인지하며
각 지역별 고유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이 행사는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이슈 관련 더욱 빨리 앞으로 나아가고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는데 유익한 네트워킹의 장이 될 것입니다.

- * 행사 세부 정보, QnA 등 상세 내용은 행사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
- * UNGC 회원사의 경우 참여비는 무료이며, 그 외 행사 제반 비용은 참가자 부담 필요

| 세션 개요

- 일시: 8월 5~6일
- 장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Asia School of Business, 11, Jalan Dato Onn, 50480)

I 연사 소개



SANDRA WU
Chairperson and CEO
Kokusai Kogyo and UN Global
Compact Board



SANDA OJIAMBO
Assistant Secretary-General
and CEO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TOSHIO ARIMA
Chairman of the Board
Global Compact Network
Japan



JOHARY MUSTAPHA
Chief Executive Officer
Forest Interactive



KANAKO FUKUDA
Managing Executive Officer
Sumitomo Chemical Co., Ltd



CHARLES BREWER
Group Chief Executive Officer
Pos Malaysia Berhad



ANJU JASWAL
Managing Director
Azbil Corporation



CARMEN LOH
Director for Southeast Asia
Accenture Strategy



ESTHER CHANG
Executive Director
UN Global Compact Network
Singapore



KAZUTO TSURUGA
Chief Planning Officer
UN Global Compact Network
Japan



ESTHER AN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City Developments Limited



DR SUMITRA NAIR
Senior Director & Head of
Sustainability
Telekom Malaysia



CHENG YEE CHIN
 Director
 DTC World Corporation Pte
 Ltd



JUNAID IQBAL
 Director of Sustainability
 AIA Group



ATIYA AWACHANAKARN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Principal Capital Public
 Company Limited



BELINDA SHU
 Global Head of Quality,
 Regulatory & ESG
 VANITY GROUP



FARIDAH ISKANDAR
 Head, Southeast Asia
 Copperleaf Technologies



YUKO TSUTSUI
 Executive Officer
 NYK Line



SHAMARUKH FAKHRUDDIN
 Director
 Urmi Group

FORWARD FASTER NOW | ASIA & OCEANIA

Accelerating Sustainable Business Action in the Asia & Oceania Region!

August 5-6, 2024

Join Us in Kuala Lumpur, Malaysia!



[자세히 보기](#)

4. 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안내(9/24)



전 세계 정부 지도자, 비즈니스 리더, 국제기구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2030 아젠다 달성 관련 민간 부문의 기여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와 지식 및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본 행사를 개최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지난 25년 동안 지속가능한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무대에서 노력해 왔습니다.

2024년 9월 24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연례 서밋인 **'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올해의 리더스 서밋은 변화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더 나은 현재를 제공하고 미래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2024 미래를 향한 서밋(Summit of the Future)과 함께 2024 유엔총회 기간 동안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 행사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의 역량을 제고하고,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를 기업이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혁신, AI 및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화함에 따라, 기업이 다양한 리스크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서밋이 될 것입니다.

* 행사 세부 정보, Q&A 등 상세 내용은 행사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하단 링크)

* UNGC 회원사의 경우 참여비가 할인되며, 행사 제반 비용은 참가자 부담 필요

| 세션 개요

- 일시: 2024년 9월 24일

* 9월 25일은 Forward Faster Acceleration Day 개최

- 장소: 미국 뉴욕 (The Nest Climate Campus, Javitz Center North)

| 주요 연사



SANDA OJIAMBO
Assistant Secretary-
General and CEO
UN Global Compact



AMY WEBB
Founder and CEO
Future Today Institute



AKAYA WINDWOOD
Lead Advisor
Third Act



**LUÍSA FRANCO
MACHADO**
Young Leader for the
SDGs



문의 : UNGC 한국협회 조연경 과장

Tel. 070-4327-9767

E-Mail. ykcho@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5. 2024 ESG & 환경 통합실무그룹 2 차미팅 결과(6/28)

- 행사: ESG & 환경 통합실무그룹 2 차미팅
- 일시: 2024 년 6 월 28 일(금), 09:00-12:10
- 장소: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 10 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지난 6 월 28 일, UNGC 한국협회는 2024 년도 ESG & 환경 통합실무그룹 2 차미팅을 개최했습니다. 본 실무그룹에서는 최근 한국회계기준원의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및 "제 11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로 인해 기후공시 및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을 지원하고자 <글로벌 기후공시 동향 및 기업의 KSSB 대응과 재생에너지 조달 및 RE100 대응>을 주제로, 전문가 강의를 듣고 주요 기업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I. 인사말



먼저 UNGC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은 실무그룹에 참여한 UNGC 회원사 실무진분들을 환영하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본 실무그룹을 통해 국내외 기후공시와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기업 전략 모색에 인사이트를 얻고, "기업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 동향에 발맞춰 공개적으로 기후행동을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II. [ESG 발표] 한국회계기준원: 글로벌 기후 공시 동향과 KSSB 공개 초안



▲한국회계기준원 유하은 책임연구원

첫번째로, <글로벌 기후공시 동향과 KSSB 공개초안>을 주제로, **한국회계기준원 유하은 책임연구원**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유 책임연구원은 올해 MSCI 에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3%가 투자 의사결정에서 ESG 를 고려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글로벌 ESG 투자 전망과 주요 관할권의 ESG 공시 동향 및 상호운용성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ESG 공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맞추어, 올해 4 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발표한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제정원칙과 공시 기준의 내용 및 특징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두 가지 의무공시 기준 중, 제 2 호 기후 관련 공시 사항에 있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탄소 가격, ▲Scope 3 세부적 공시, ▲시나리오 분석 등에 대해 기업의 대비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먼저 내부 탄소 가격의 경우,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내부 탄소 모델 설정 방식 등에 관해 KSSB 가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으며, 경영전략에 기반한 탄소 가격의 적용 범위를 고려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산정에 사용한 모델을 공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Scope 3 공시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공감하며 기업들이 보다 용이한 시나리오 분석을 위해 관련 지침 공유 여부를 IFRS 재단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II. [ESG 기업사례] SK 하이닉스: 기후공시 준비의 한계사항 및 대응방안



▲SK 하이닉스 민준기 TL

다음으로, **SK 하이닉스 민준기 TL** 이 <기후공시 준비의 한계사항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후 공시 대응 준비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민준기 TL 은 SK 하이닉스가 ESG 기후공시 대응을 위해 ESG 경영전략을 공표하고, 부사장 주재의 탄소관리위원회를 구축하여 전사의 탄소 저감 활동을 일원화하여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시 주제 선정, ▲주제별 공시 요구사항 파악, ▲GAP 분석을 통한 개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프로세스로 공시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 중 특히 ▲연결기준 공시, ▲경영진 보상 연계, ▲재무 영향 식별 등을 주요 한계사항으로 언급하며, 추상적인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 설정의 어려움과 관련 전문 인력 및 기술력 부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SK 하이닉스는 연결기준 공시 대응을 위해, 먼저 재무적 중요성 기준을 적용하고, ESG 관련 고유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연결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수립된 지속가능목표의 성과관리 방식으로, 경영진 및 담당 직원의 KPI에 반영하고 보상을 연계하여 지속가능경영을 향한 임직원의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사의 기후변화 활동을 ▲탄소배출 감축,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 기회 식별 등으로 설정하고 해당 활동 실적을 재무제표 계정에 연결하여 확인한 기후변화 대응의 자본지출을 바탕으로 공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습니다.

IV. [환경 발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재생에너지 조달과 RE100 기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수석연구원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기후공시와 함께 기업에게 요구되는 재생에너지의 전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조달과 RE100 기준>을 주제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수석연구원**이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RE100 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가 GHG 프로토콜 Scope 2 가이드라인의 시장기반 배출량 산정법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재생에너지와 GHG 프로토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식의 연관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관련하여 기업들이 RE100 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Scope 2 전부와 Scope 1 의 전력 배출 범위 전반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CDP 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2024 RE100 기술기준(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많은 한국 기업(전체 위원회의 2~30% 정도)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언급하며, ▲바이오와 석탄의 혼소 부분 비율 및 환경속성인증서를 통한 재생에너지 구매 인정

여부, ▲15년 규정* 예외 조항 완화, ▲녹색프리미엄 추가성 등의 재생에너지 조달 옵션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수석연구원은 GHG 프로토콜에 기반한 Scope 1과 2의 설계 구조상 중복 산정을 인정하지만, 녹색프리미엄을 통해 scope2 배출량 감축을 보고할 때, 국내 배출권거래제 지침을 사용한 경우 왜곡된 감축 보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때, 전체소비전력의 85%에 한해서는 반드시 최초가동 또는 리파워링 이후 15년이 지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재생전력 또는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는 조항

V. [환경 기업사례] LG 에너지솔루션: 재생에너지 확대 현황 및 제언



▲LG 에너지솔루션 전인호 선임

마지막으로, **LG 에너지솔루션 전인호 선임**이 RE100 국내 기업으로서 재생에너지 확대 현황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주요 고객사가 위치한 유럽과 미국의 흐름에 맞춰 탄소 네거티브 전략을 세우고, 환경 및 사회적 측면에서의 8대 중점영역과 거버넌스 측면의 4대 Enabler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가이드라인을 제정 및 배포하였고, 2030년까지 RE100 선언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 선임은 “배터리 LCA 관점에서 분석 시 전체 탄소배출량의 66%가 공급망에서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의 관건은 협력사의 RE100을 동참시키는 것”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더불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RE100 참여 확대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급 불균형 대응, ▲공급확대를 저해하는 규제 완화, ▲직접 PPA 확대 등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급망 전반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 주도의 중소기업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주요국 재생에너지 인정 수단 가이드를 배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으로,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을 위한 연료 전환을 위해 혼소 발전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ESG & 환경 통합실무그룹은 KSSB와 재생에너지 조달에 대한 주요 정보와 실무전략을 공유하여 국내 기업들이 기후공시 대응과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힘써 지속가능경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UNGC 한국협회는 계속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내재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유익한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추후 3 차 미팅에도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환경 실무그룹: 최하은 연구원 (T 02-6954-2148 / gckorea@globalcompact.kr)
- ESG 실무그룹: 안성은 과장 (T 070-4327-9771 /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6. 2024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BHRA) 프로그램 결과



□ 기 간: 2024년 2월 1일 ~ 2024년 6월 26일

□ 수료 기업: 총 29개 기업 및 기관

* △강원개발공사, △NAVER, △넥센타이어, △두산퓨얼셀, △DGB 금융지주, △CJ CGV, △CJ 제일제당, △애큐온캐피탈, △SM 엔터테인먼트, △SK 네트워크, △HLB, △HL 클레무브, △LS 일렉트릭, △LG 디스플레이, △LG 에너지솔루션, △LG 이노텍, △LG 전자, △LG 화학, △KCC 글라스, △콜마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홀딩스, △한국전력기술, △한국철도공사, △한국콜마, △한샘, △한전산업개발, △효성첨단소재

<p>2024년 2월</p> <p>1단계</p> <p>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및 인권 실사에 대한 이해 증진</p> <p>온디맨드 세션 1회 글로벌 심화 과정 1회</p>	<p>2024년 3월</p> <p>2단계</p> <p>영향 평가를 위한 가치사슬 파악 및 잠재적 인권 영향 식별</p> <p>온디맨드 세션 1회 글로벌 심화 과정 1회 워크숍 1회(모듈 1&2)</p>	<p>2024년 4월</p> <p>3단계</p> <p>우선순위의 중대한 인권 영향 선정 및 해당 영향에 대한 활동 이해</p> <p>온디맨드 세션 1회 글로벌 심화 과정 1회</p>	<p>온디맨드 세션 온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터닝 코스(UNGC 아카데미) • 모듈 1 ~ 4(총 4회)
<p>2024년 4월</p> <p>4단계</p> <p>우선순위 인권 영향에 대한 인권 실행 계획 수립, 적용 및 추적</p> <p>온디맨드 세션 1회 글로벌 심화 과정 1회 워크숍 1회(모듈 3)</p>	<p>2024년 5월</p> <p>5단계</p> <p>영향 받는 이해관계자에게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 학습</p> <p>온디맨드 세션 1회 글로벌 심화 과정 1회</p>	<p>2024년 6월</p> <p>6단계</p> <p>구제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증진</p> <p>온디맨드 세션 1회 글로벌 심화 과정 1회 워크숍 1회(모듈 4)</p>	<p>글로벌 심화 과정 온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ift에서 진행(UNGC 아카데미) • 월 1회(총 6회)
			<p>전문가 Q&A 온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O, 금융기관 인권실사 등(UNGC 아카데미, 총 3회)
			<p>대면 워크숍 오프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협회에서 진행(Kick-off 미팅 및 1~3차 워크숍, 총 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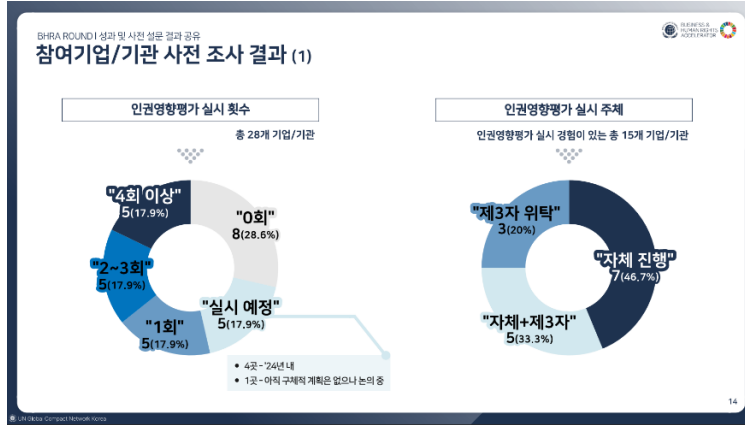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전세계 다양한 산업과 지역에 위치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들의 인권과 노동권 존중에 대한 약속과 이행을 가속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지난 2023년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첫 번째 런칭한데 이어, 올해 40개의 한국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두 번째 라운드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온디맨드 세션, 해외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세션, 글로벌 심화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총 4개의 온디맨드 모듈과 3번의 대면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I. 킥오프 미팅 -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 기업/기관 현황 공유(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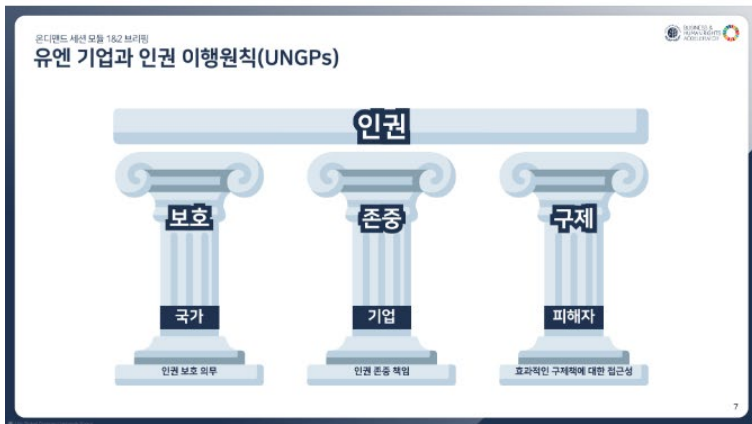
2월 21일, 31개 기업/기관에서 약 60명의 담당자가 참여한 킥오프 미팅을 출발점으로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두 번째 라운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축하 영상을 통해 기업이 인권 존중 책임을 강화할수록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보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하며 번영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해 런칭 당시보다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가 생겨나게 된 배경으로 EU 공급망실사지침(CS3D)과 같은 국내외 동향에 우리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진행되는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 실사 절차를 수립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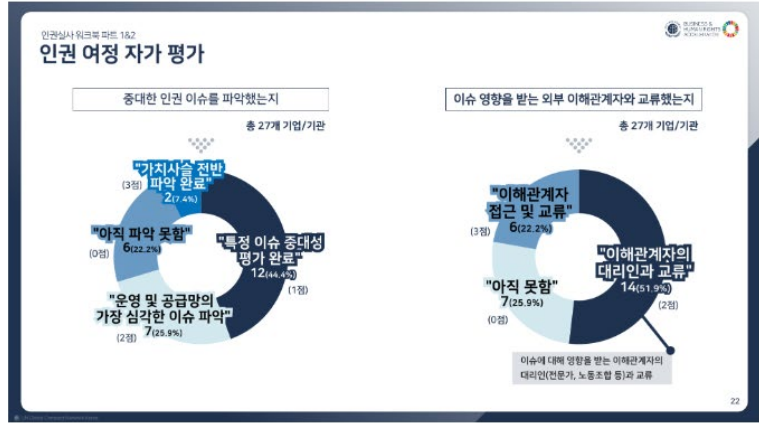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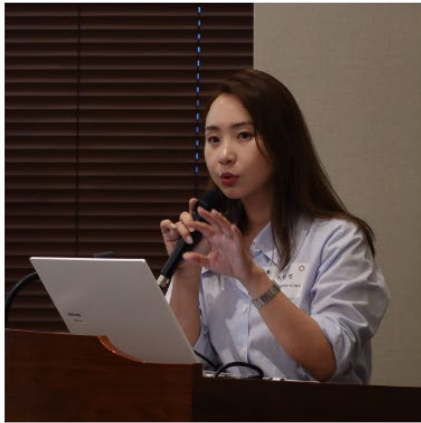


이후 첫 번째 라운드 성과 및 프로그램 소개, 구성 내용과 운영 일정 브리핑이 이어졌으며, 특히 사전 조사 결과 공유를 통해 참여 기업/기관별 △인권영향평가 관련 사항(실시 횟수, 진행 방식, 지표 개수 등), △임직원 인권의식 체감도 측정 여부, △개선이 시급한 영역, △공급망 단위 평가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참여사별 기업과 인권 추진 현황과 프로그램 참여 목표 및 기대사항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II. 1 차 워크숍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인권 실사의 시작(3/15)



3 월 15 일 진행된 1 차 워크숍에서는 온디맨드 세션 모듈 1(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2(인권 실사의 시작)에 대한 설명 후, 전문가 강의와 그룹별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지현 법무법인(유) 원 변호사는 '인권경영의 실무적 이해(공급망 실사와 인권영향평가)'를 주제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등장 배경, EU가 요구하고 있는 기업의 공급망 실사 수준, 공급망 실사지침 시행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담 요소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지현 변호사는 인권 리스크 관리 실패로 인한 재무 리스크와 평판위기, 소송 리스크를 설명하며, 여러 국가의 공급망 실사 관련 규범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인권 실사 내재화, △리스크 식별, △적절한 조치 시행, △고충처리 메커니즘 구축 및 유지, △조치에 대한 효과성 모니터링, △실사 내용 공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의 진행으로 사전에 제출한 참여 기업/기관의 인권 여정 자가 평가의 결과를 공유하고 그룹별 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자들은 산업부문별로 나뉘어져 인권 실사를 위한 자사의 비즈니스 영역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잠재적·실제적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룹별 논의사항을 공유하며 여러 분야의 많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각기 다른 인권 이슈를 서로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III. 2 차 워크숍 - 인권 영향에 대한 조치, 추적 및 소통(5/10)

5월 10일 진행된 2 차 워크숍에서는 온디맨드 세션 모듈 3(영향에 대한 조치, 추적 및 소통)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 이슈에 대한 측정 지표 개발 시 고려사항과 양질의 인권경영 공시에서 보이는 주요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정현찬 법무법인[유] 지평 전문위원은 ‘인권영향평가의 원칙과 방법’을 주제로 인권 실사 및 인권영향평가의 법제화 흐름과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방식 및 기업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정현찬 전문위원은 2023년 독일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된 이후로 적용대상 기업들이 인권정책과 인권경영 조직을 공급망 실사법의 취지에 따라 정비 중이고, 일부 기업들은 공급망 실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기되고 있다며 진정/분쟁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에릭슨, 라파지 홀심, 크로거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사례를 통해 인권영향평가의 유형과 주기, 범위 설정 등의 내용을 설명하며,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로 심각성 평가, 우선순위, 주요 이슈 도출 등의 성과물이 반드시 나와야 적절한 실사가 이행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참여 기업/기관 사례 공유 세션에서 주호성 LG 전자 ESG 전략실 책임은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기반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 소개’를 주제로, RBA 심사의 진행 방식과 부적합 분류 기준, 개선 계획 등의 실무 사례들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노동영역의 심사 요건에 대하여 주요 점검 항목과 부적합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곽병수 CJ 제일제당 Corp HR Professional은 ‘해외사업장 인권 리스크 점검 사례’를 공유하며 2021년부터 국내 제조사업장을 시작으로 해외사업장과 협력업체의 인권 리스크 점검을 확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국내외 ESG 공시 의무화 대응을 위해 노동/인권 분야의 점검 항목을 보다 세밀하게 구성하여 해외사업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와 개선 계획,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습니다.

조고은 DGB 금융지주 ESG 전략경영연구소 매니저는 ‘인권영향평가와 인권 보고서’를 주제로, DGB 금융그룹의 인권 리스크 파악 절차와 인권영향평가의 주요 결과, 인권 실사 이행체계 구축 수준 진단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목적과 구성 요소를 소개하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만으로 불충분한 내용을 보완하고, 발간 기업만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권영향평가와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그룹별 토의에서는 참여 기업/기관에서 제출한 워크북 과제를 토대로, 각 참여사에서 심각성과 발생가능성을 기준으로 분석한 중대 인권 이슈를 공유하고, 파악된 인권 리스크의 대응 및 개선을 위한 실행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IV. 3 차 워크숍 및 수료식 - 이해관계자 참여 및 구제책에 대한 접근(6/25)

UNDP & UN Women 4 차 워크숍
효과적인 구제책의 구성 요소

- 목적: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거나 개선하는 것
- 목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지역사회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가깝게 복구

<p><원상회복> 영향을 받는 권리 보유자의 침해가 발생하기 전의 원래 상태로 복원</p>	<p><보상> 경제적으로 평가 가능한 손해에 대한 보상</p>	<p><재활> 의료, 법률 및 사회 서비스 포함</p>	<p><만족> 지속적인 인권 침해 중단, 공개 사과, 상징적 구제 및 제재 등 포함</p>	<p><재발방지 보장> 향후 유사한 침해의 재발 예방 조치</p>
---	---	---	---	---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구제절차 메커니즘’을 주제로 6월 25일 진행된 3차 워크숍에서는 지난 워크숍의 주요 내용과 모듈 4(구제책에 대한 접근) 브리핑을 시작으로 전문가 강의, 기업 사례 공유, 그룹별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안일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과장은 효과적인 구제책의 구성 요소와 운영 기반의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설명하며,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에 따라 △정당성, △접근 가능성, △예측 가능성, △공평성, △투명성, △권리 양립성, △지속적인 학습의 원천, △참여 기반 여부를 통해 고충처리 메커니즘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3차 워크숍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서 개정 발간한 기업과 인권 지침서*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기존 지침서와는 달라진 내용과 추가된 기업 사례, 인권 실사 이슈별 체크리스트 등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업과 인권 지침서(2 차 개정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지난 2019년, 기업이 더욱 강화된 인권경영 실천에 나서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며,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UNGPs 및 OECD 다국적 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기업과 인권 지침서를 발간하고 한 차례 개정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판(2024)은 구성별 분권화(①국내외 동향 및 주요 가이드라인, ②인권 실사 가이드라인, ③인권 실사 이슈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인권경영 담당자가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 △EU 공급망 실사지침(CS3D), △인적자본 공시, △KSSB 공시기준 초안 등 국내외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기업이 더욱 실효성 있는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 실사의 각 단계별 세부 지침을 구체화하고,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이슈에 대해 참고 가능한 14개 인권 이슈별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인권 지침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공식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진 전문가 강의 세션에는 이유정 법무법인(유) 원 변호사 및 ESG 센터장이 ‘기업의 인권침해 사건 실무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인권침해 사건의 유형과 특징, 실무에서의 고려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이유정 변호사는 기업/기관 내 인권침해 사건들이 권력의 불균형을 토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신고와 대응이 어렵고 2 차 피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진들은 구제절차 운영 업무에서 무엇보다도 △비밀 보장, △절차 안내, △조사의 신뢰성 확보, △2 차 피해 방지, △감정 배려, △중립성 유지, △사법절차 대비, △사후조치 및 모니터링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된 세부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해관계자 참여 및 구제절차 운영’을 주제로 참여 기업/기관의 사례 공유가 이어졌습니다. 오성영 NAVER Human Rights 담당자는 NAVER의 인권경영 체계가 꾸준히 고도화 진행 중이라며, 그 중에서도 제보와 신고, 상담자의 상황과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접수 채널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NAVER는 △회사 기준 및 제도에 대한 상담·신고 채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특화 채널, 인권경영 전담부서에 직통 신고가 가능한 채널 등을 운영 중이고,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함께 의견 청취를 진행하여 조사 내용에 대한 객관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광현 한샘 기업문화실 실장은 한샘의 다양한 조직 내 고충 접수 채널과 방식, 절차를 소개하며, 신고 용이성을 확대하고 조직 전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반복적인 교육과 무관용 원칙, 조사 과정에서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샘은 직책자에게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인권 침해 사건을 즉시 인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임직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2024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전반적인 성인지 감수성이 상향 평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구제절차를 주제로 한 그룹별 토의를 통해 참여사간 운영 중인 구제절차 메커니즘과 실무적 애로사항,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3 차 워크숍을 끝으로 모든 과정을 수료한 참석 기업/기관 담당자에 대한 수료식이 이어졌으며, 2 월부터 6 월까지 진행된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두 번째 라운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 참여 기업/기관 모집은 9 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과정은 2025 년 상반기에 시작됩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안일곤 과장 (T. 070-4327-5057 /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7. 2024 상반기 ESG 팀장 네트워크 결과(6/20)

- 일시: 2024 년 6 월 20 일(목) 14:30 - 17:30
- 장소: 프레지던트 호텔, 모짜르트 홀(19 층)
-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지난 6 월 20 일(목), UNGC 회원사 ESG 팀장을 대상으로 ‘2024 년도 상반기 ESG 팀장 네트워크’를 개최하였습니다. 66 개 기업 약 70 여명의 팀장들이 참석한 본 행사는, 정재규 한국 ESG 기준원 ESG 정보분석센터장의 발표에서 ESG 최신 동향으로 ESG 모범규준의 상세 내용을 소개하며 ESG 경영 추진의 핵심 주체로서 ESG 팀장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어진 기업 사례 발표에서는 ESG 내재화를 위한 팀장의 주요 역량과 ESG 추진 과정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네트워킹 및 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I. 개회사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ESG 를 기업 가치 창출에 깊이 연계하고 전사적으로 ESG 경영을 내재화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ESG 담당 팀장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ESG 전략 수립, 공시 대응, 임직원의 인식 개선, 역량 강화, 인재 유치 등 ESG 팀이 마주한 과제들을 함께 극복하고, ESG 팀장 간의 협력적 성장을 도모하고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I. '인트로 서베이: 우리는 지금'



발표 시작에 앞서, 참석한 ESG 팀장들을 대상으로 ESG 현황 파악을 위한 '인트로 서베이: 우리는 지금'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ESG 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슈'로 탄소배출 감축, 인권 경영, 재생에너지 전환 순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중요 ESG 이슈'는 ▲공급망 실사, ▲인권 경영, ▲공시 대응, ▲그린워싱 등이 나왔습니다. 'ESG 팀장이 최우선으로 두는 ESG 업무'는 ESG 공시 및 보고서 작성, ESG 전략 수립 및 추진, ESG 평가 대응, 유관부서 협력 및 문화조성, 재무성과 연계 및 KPI 반영 순으로 응답했고, '가장 큰 도전 과제'로 광범위한 ESG 업무 범위, 재무성과 연계 및 KPI 관리, 내부 역량 강화 및 인재 유치, 경영진

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자 소통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내외부적 요소’로 ▲인재 충원, ▲역량강화, ▲리더십 지원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III. 한국 ESG 기준원 ‘ESG 경영 추진의 사복, ESG 팀장의 역할 (부제: 슬기로운 ESG 팀장 생활)’



정재규 한국 ESG 기준원 ESG 정보분석센터장은 ESG 모범규준을 활용한 체계적인 ESG 업무 추진과 ESG 팀장의 핵심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정센터장은 ‘26년부터 유가증권시장 내 상장사 대상으로 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를 앞두고 강조되는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해 설명하며,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분류 체계, ▲이사회의 적극적 의사 결정, ▲임원 보상 정책,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 주요한 이슈에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센터장은 또한 ‘슬기로운 ESG 팀장 생활’이라는 주제로, ESG 담당 팀장의 역할에 대한 여러가지 제언을 했으며, ESG 경영 추진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과의 조율, 부서간 협력 등 ESG 팀장의 중간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공급망 관리, 중대재해 감소, 공시 보고 등 광범위한 영역을 망라해야 하는 ESG 업무의 특성상 향후 경영 핵심 전략에 ESG 전략을 통합함으로써 ESG 팀이 핵심부서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사복’은 가위 양쪽 날이나 부채를 이어주는 중심축으로, ESG 경영 추진에서 경영진과 실무진을 연결하는 팀장의 중점 역할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IV. ESG 팀장 사례 발표 - NH 투자증권, SK 이노베이션, (주)두산



이어서 ‘조직의 ESG 역량 내재화를 위한 팀장의 역할’을 주제로 NH 투자증권 및 SK 이노베이션, (주)두산의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홍석 NH 투자증권 ESG 추진 팀장은 금융업은 고탄소 배출 산업은 아니지만 ESG 규제 강화를 금융기관이 촉진한다고 언급하며, 재무성과 연계를 포함한 여러가지 도전과제를 돌파하기 위해 팀장의 리더십과 이해관계자소통, ESG 요소를 KPI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전략으로 ▲REC 구매, ▲2040년 탄소중립위한 Scope 1&2 관리, ▲기후 시나리오 분석, ▲투자 회사 평가 체계 수립 및 ESG 딜 관리 시행,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에그테크* 산업 투자 등 중장기적 계획과 방향성을 공유하였습니다.

* ‘에그 테크’: Agriculture (농업)과 Technology (테크)의 혼합용어로 자율주행 트랙터, AI 기술을 활용한 과일 선별 등 농업과 관련된 직간접 기술에 대한 투자를 받아 운영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김현문 SK 이노베이션 ESG IMPACT 팀장은 ESG 내재화를 위해 ▲사내 기업가 정신, ▲기업 핵심 가치사슬에 연계한 ESG, ▲회복탄력성 등을 키워드로 진행중인 ESG 프로그램 및 팀장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사내 기업가 정신의 실천 결과물로 ▲그린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중소협력사 대상 XR 기반 안전교육장 프로그램,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 ▲택소노미를 활용한 그린 파이낸싱 기회에 관해 구체적으로 공유했습니다. 특별히 ESG를 기업의 핵심 가치사슬에 연계하여 재무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팀장의 회복탄력성이 곧 팀의 회복탄력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희진 (주)두산 VVC 전략 부문 ESG 팀장은 넓은 ESG 업무범위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업무를 잘 해 나가기 위해서 ESG 팀장은 ‘잘 싸우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경영 철학을 ESG 업무에 녹여 내고 개인, 팀, 조직, 회사 전반으로 성과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ESG 업무의 핵심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성희진 팀장은 ESG 팀 관리에서 ‘조직의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팀원의 우수한 역량 식별, ▲ESG 관련 KPI를 수립하여 자사내 혁신 프로세스에 통합, ▲ESG 외부 자문을 통한 경영진 사고 확장 등 구체적인 전략들도 소개하였습니다.

V. 토크콘서트



이어서 토크콘서트에서는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이 기업연사들과 함께 ▲ESG 팀 구성원 역량 강화, ▲계열사와의 협력,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전환 시 ESG 연계 방안, ▲ESG 내재화 및 운영 노하우 등에 관해 다양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참석한 팀장들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들과 현안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만찬과 함께 자유롭게 네트워킹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상반기 ESG 팀장 네트워크'에 참석한 ESG 팀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전반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프로그램 중 '기업 팀장 사례 발표'가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ESG 팀을 이끄는 ESG 팀장(연사)들의 경험과 진솔한 스토리가 공감되었고, 유사한 고민에 새로운 해법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어 유익했다는 의견이 주류였습니다. 또한, 응답자 전원이 '재참석' 및 '추천 의향'이 있다고 답하여 본 행사가 참석한 실무급 팀장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에 유익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UNGC 한국협회는 지난해 'ESG 팀장 데이'의 첫 개최를 성료하고 참석한 팀장들의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연 2 회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상반기 ESG 팀장 네트워크'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내 ESG 리더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하반기 ESG 팀장 네트워크'도 개최할 예정이오니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안성은 과장 (T. 070-4327-9771 /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8.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AA) 킥오프 및 OT 미팅 결과(6/17)

- 일시: 2024년 6월 17일(월) 14:30-16:30
- 장소: ENA 스위트 호텔 R.ENA 컨벤션
-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6월 17일(월) 참여사 대상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limate Ambition Accelerator, 이하 CAA) 프로그램의 킥오프 및 오리엔테이션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21개 기업에서 약 32명의 실무진이 참석한 본 미팅에서는 유연철 사무총장의 인사말의 시작으로,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사전 설문 조사 결과 공유, CAA 프로그램 및 운영 방법 안내, 그리고 참여사간 소개와 관련 기대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참석기업(가나다순): 네이버 주식회사, 넥센타이어, DRB 동일, (주)두산, 두산퓨얼셀, DL 이앤씨, DL 케미칼, 마스텐투자운용, 세아상역, 아이센스, i-ESG, 애큐온캐피탈, SK 이노베이션,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LG 유플러스, 코스글로벌, 코스맥스, 포스코, 현대제철 주식회사, 힐라홀딩스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최하은 UNGC 한국협회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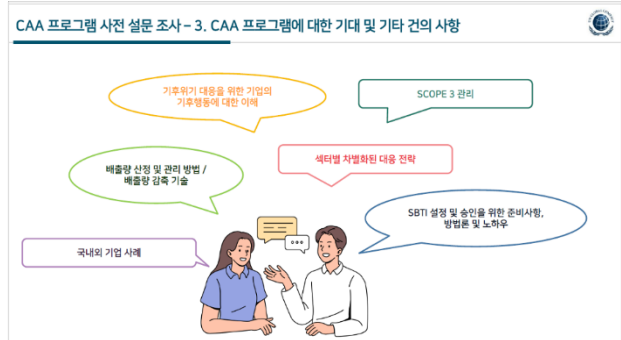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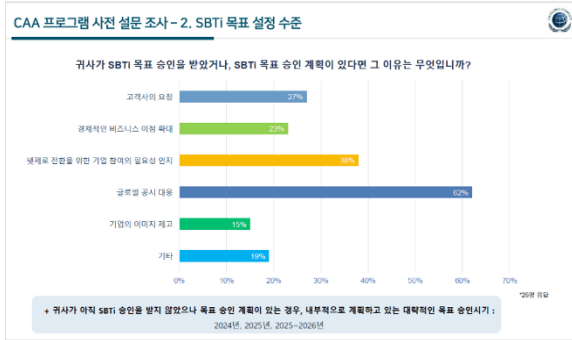


장한별 UNGC 한국협회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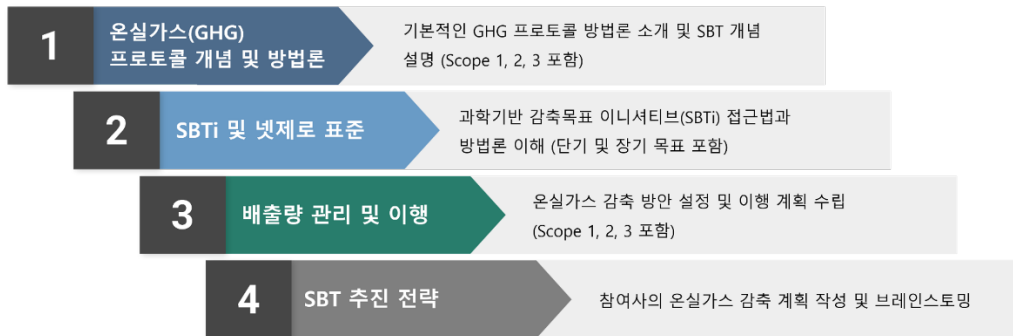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국제사회가 현재 약속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모두 성공해도 지구 평균기온을 1.5도 이내로 유지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며, 그 어느때보다 국가, 사회를 비롯한 기업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노력이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는 기업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글로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며, SBTi의 공동주최기관 중 하나인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제공하는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AA) 프로그램의 세 번째 라운드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고 과학에 기반한 감축목표를 설정하는데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하은 UNGC 한국협회 연구원은 CAA 참여사들의 SBTi 관련 이행 현황과 담당자들의 실질적인 고민과 니즈를 파악하고자 진행하였던 사전 설문 조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4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1차와 2차에 걸쳐 진행된 본 설문 조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주요 내용은 △참여사들의 소속기업에 대한 정보, △SBTi 목표 설정 및 인식 수준, △CAA 프로그램에 대해 기대하는 바와 기타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이 SBTi 목표승인을 받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많이 받은

답변은 “글로벌 공시 대응”이었고, 이와 더불어 “넷제로 전환을 위한 기업 참여의 필요성 인지”도 40% 정도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기대사항에서는 △기후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도모, △배출량 산정 및 관리 방법, △Scope 3 관리, △SBTi 설정 및 승인을 위한 준비사항과 구체적인 방법론 및 노하우 등이었습니다.



이후 장한별 UNGC 한국협회 과장은 SBTi 를 비롯한 기업의 넷제로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협회 발간자료들을 설명한 이후, 향후 5 개월 동안 진행될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AA)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발표내용은 △프로그램 구성, △모듈별 교육내용, △온라인 플랫폼 접속 방법, △워크샵 진행 방법, △프로그램 일정, △수료기준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세 번째 라운드에서 새로 도입되는 액티비티 팩을 소개하며, 온디맨드 콘텐츠와 워크샵의 학습 내용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고 향후 감축 계획을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과제의 작성 방법과 제출 기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발표를 마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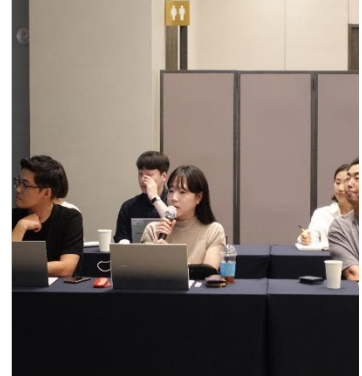


이어서 이선미 UNGC 한국협회 팀장의 진행으로 참여사 간 소개와 프로그램 기대사항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유럽과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규제 강화와 더불어 해외 고객사의 요구로 현재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 수립 및 SBTi 가입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들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기타 프로그램 참여이유와 기대사항으로는 SBTi 관련 지식 습득과 동종 업계 현황 및 관련 진행사항 벤치마킹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선미 팀장은 CAA 프로그램이 모든 산업군에 다 적용되는 포괄적인 교육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며, 글로벌 전문가 및 SBTi 담당자도 온라인 워크샵을 통해 직접 소통할 수 있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 및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 소개와 함께 세션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선미 UNGC 한국협회 팀장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장한별 과장 (T. 070-4327-9768 /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9. '성평등 증진 및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구축' GEK 웨비나 결과(6/14)

- 일시: 6/14(금), 10:30-12:30
- 방식: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중일 지역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UNGC 중국, 일본 협회와 함께 한중일이 공통으로 직면한 인구위기 해결과 성평등 증진 및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 확대를 위해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UNGC 한국협회가 운영하는 젠더이퀄리티코리아(GEK)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본 행사에는 국제노동기구(ILO), 유엔대학교 등에서 인구개발 전문가로 활약중인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학계 전문가와 더불어 한중일 기업·기관 대표 및 실무진 130 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성평등 증진과 지속가능한 인적자원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해법을 모색하였습니다.



I. 개회사 및 환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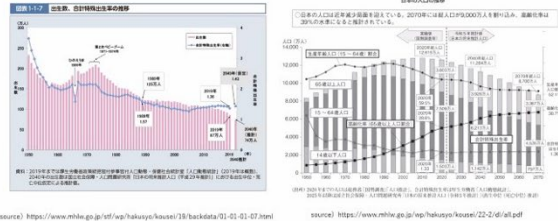
리우 명 UNGC 중국사무소 대표는 행사에 참여한 한일 대표 및 연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3 국이 직면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기업이 가족친화적이고 성별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5 번 '성평등'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히데타카 야베 UNGC 일본협회 사무총장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한중일간의 협력이 재개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각국의 인구 개발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오늘 행사를 통해 교류하고, 향후 성평등 증진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한중일 3 국은 공통적으로 오늘날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강국임에도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지속가능성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한중일 기업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II. 특별 연사 발표

The three factors to determine the demographic structure: Birth rate, Mortality rate, and International mobility rate



첫번째 특별 연사로 사와코 시라하세(Sawako Shirahase) 유엔대학교 부총장이 ‘기업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구축을 통한 성평등 달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먼저 사와코 부총장은 인구 구조의 영향을 미치는 출산율, 사망률, 인구유동률 3대 요소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출산율로, 결혼 및 출산에 부담이 없는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노동은 생계유지 수단뿐만 아니라 가족부양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직원들의 육아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에 변화를 주면 인구위기 대응 등 사회 구조적인 변화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두번째 연사로, 리양 시아오휘(Liang Xiaohui) 중국섬유정보센터(CTIC) 수석연구원은 ‘가족 친화적 공장 구축: 중국 섬유 및 의류 산업 사례’ 주제 발표에서, ‘18년부터 FFF(Female Workers, Family, Factory/Firm)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 직원, 가족간 관계성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연구를 진행한 가운데, 기업과 직원의 밀접성은 높은 반면 기업과 가족간 연결은 미미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직원의 가족은 직원이 더욱 뛰어난 역량을 펼치도록 지원하는 ‘숨겨진 자산(off-plant asset)’이기 때문에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구축은 기업 실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지역마다 수요 차이(대도시는 자녀 보육 및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 중소도시는 가족부양을 위한 기업의 경제적 지원에 높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다각화된 수요를 수렴하고 반영한 사내문화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다음으로, 벤 리우(Ben Liu) UNGC 중국사무소 코디네이터가 ‘아시아 및 중국의 직장내 성평등 동향 및 모범사례’를 주제로 올해 초 발간된 2024 WEPs 성평등 리포트 결과를 설명하면서 출산휴가는 법정 제도를 통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행되고 있으나, 직장내 육아시설, 육아보조금 및 서비스 제공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기업은 법정 의무 제도 외 가족 지원 복지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모범 사례로서 △JD.com(유급 출산휴직 30 일 추가 제공, 어린 자녀 대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 제공), △샤먼 항공(여름철 휴가시즌으로 근무가 집중되는 승무원 대상 자녀 여름캠프 제공) 등 8 개의 중국 기업 모범사례 소개를 통해 웨비나 참여 기업들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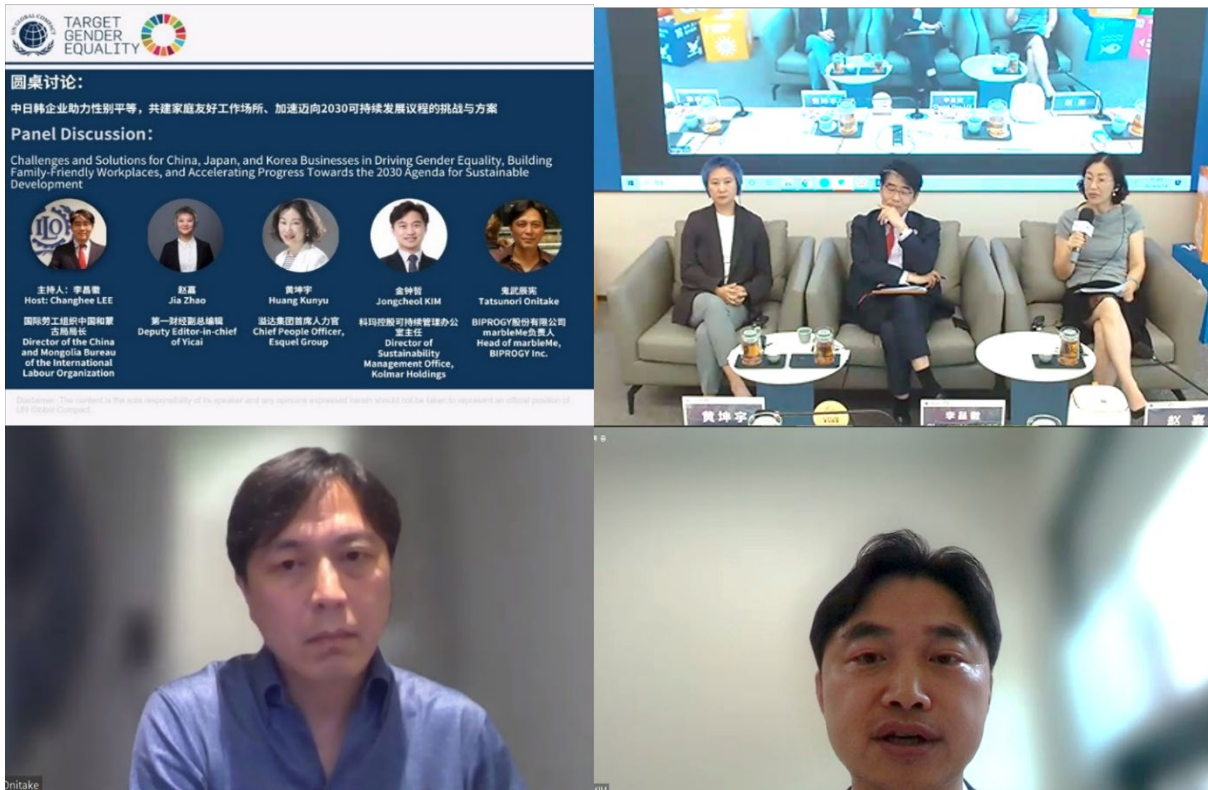
Explanations for Low Fertility in Korea

Demographical Factors

- Less marriage
- Later age marriage constrains ability to reach desired number of children
- Very few non-marital birth (OECD 41% Korea, Japan 2-3%)
- Marital births declining

마지막으로 김영미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속가능성 위기 시대, 가족친화 직장문화 구축을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역할’ 발표를 통해 동아시아권 국가의 경우 결혼과 출산이 직결(OECD 국가 비혼 출산율이 41%인 반면 한국과 일본은 2-3%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결혼 감소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양한 불안 요소(△보편적으로 가족친화제도 및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대기업의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이직 고민에 대한 불안감, △높은 주거비, △과도한 업무 부담, △양육비 고충)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을 이루기 때문에 정부, 기업, 지역사회의 총력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기업은 △ESG 이행의 핵심으로 ‘가족친화적 경영 선언’을 통한 사회(social) 부문 강화, △사내의견 수렴 및 전문 컨설팅 추진, △기업문화위원회 등 사내 기구 설립 등을 통해 가족 지원 정책이 지속 가능하게 실행될 수 있는 체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III. 기업연사 패널 토론



다음 세션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이창휘 ILO 중국 및 몽골 국가사무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성평등 촉진과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의 도전과 해법’을 주제로 기업연사 4 인이 패널로 참여하여 자사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먼저 한국 기업 패널로 참여한 김종철 콜마홀딩스 지속가능경영사무국 상무는 기업내 성평등의 의의와 기업 지속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성평등을 통해 기업은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혁신이 촉진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및 ESG 평가시에도 여성 인재 유치, 임원진 및 이사회 성별다양성 확보 등이 중요 이슈로 떠오른 점을 설명하면서,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ESG 경영의 핵심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출산장려금 확대, △유급 출산 및 육아휴가 확대, △가족 구성 인원수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등 콜마홀딩스가 출산지원팀 신설을 통해 시행중인 다양한 가족친화적 제도를 설명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기업 연사 황 کن유(Huang Kunyu) 에스켈 그룹 인사관리 국장이 노동집약적인 의류 산업내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섬유업체는 전통적으로 기술력이 낮은 업종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형 산업으로의 이미지 혁신 추진, △자동화 등 하이테크 도입으로 여성 고급기술 인력 양성, △‘세계 여성의 날’ 계기 여성 리더십 및 성평등 인식 개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젊은 공학 전공의 인재들을 유입하고 성별 포용적인 직장 환경으로의 변화된 점을 제언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선택제 도입을 통해 미혼 여성은 2,3 교대를 선택하여 경제적 보상을 얻고, 기혼 및 가족부양 여성의

경우 1 고대 선택을 통해 자녀 양육시간을 확보한 사례를 언급하며 직원의 개인별 니즈에 입각한 제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언론사 연사 짜오 지아(Zhao Jia) 이카이 논설 부위원장은 성평등 관련 기업과 대중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기업이 다원적이고 다각적인 개성을 존중하고 개개인을 포용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 성평등 이슈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성평등의 토대가 되는 '포용적 직장문화'는 남성 직원도 시행 착오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역량을 개발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대외홍보나 마케팅 진행시 여성들을 유연하지 못한 성별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녀의 고착화된 이미지를 벗어나 혁신적으로 전환된 이미지 시도 등을 권장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일본 기업 연사 타츠노리 오니타케(Tatsunori Onitake) 바이프로지 대표는 기업이 가치사슬내 영향력 확대를 통해 공동 목표 달성에 힘쓰며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여성 직원들이 산후 우울증, 육아 고충 등 겪고 있는 정신적 어려움을 외부와 공유하기 어려워하며, 결국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바이프로지가 운영중인 디지털 여성 커뮤니티를 통해 직원들이 공감과 위로를 받고, 더 나아가 해결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등 근무 효율성과 소속감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도 향상되었다며, 기업내 커뮤니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IV. 마무리

이번 웨비나를 통해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학계 및 기업 전문가와 함께 기업내 성평등 증진과 지속가능한 인적자원 관리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토론의 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행사는 기업내 여성 대표성 강화와 역량강화를 통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의제 추진 가속화를 위한 젠더이퀄리티코리아(GEK)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GEK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UNGC 한국협회는 기업이 성별 균형을 이루고 성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타겟젠더이퀄리티(TGE) 프로그램을 런칭하여, 올해 다섯번째 라운드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UNGC 회원사 대상 참여기업을 모집 중으로 7월 말까지 UNGC 한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조연경 과장 (T. 070-4327-9767 /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10. 2024 년 1 차 ESG 멘토링 결과

- 일시: 2024 년 4 월 30 일 ~ 6 월 12 일
- 장소: 각 멘토 기업 사옥, UNGC 한국협회 사무실, 온라인 등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회원사가 UNGC 10 대 원칙을 경영전략에 내재화하고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ESG 대응 전략 수립과 기업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2024 년 총 10 개의 ESG 멘토링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월 - 6 월 동안 각 멘토링 그룹별로 1 차 멘토링 세션을 통해 타 기업/기관의 현황을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4 년도 멘토-멘티 매칭 현황>

멘토	멘티	멘토	멘티
(주)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규온캐피탈 • 미니쉬테크놀로지 • 발렉스서비스 • 기술보증기금 	포스코이앤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이제이링크 • 한국철도공사 • 한국환경공단 • KB 증권
DRB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에이치에이 주식회사 • 아이센스 • 피앤에스네트웍스 • 제뉴원사이언스 	포스코인터내셔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CC 글라스 • HK 이노엔 • (주)연우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CJ 제일제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롯데홈쇼핑 • 삼양사 • 유한킴벌리 • 세아상역 	한국가스기술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도시공사 • 부천여성청소년재단 • 한국임업진흥원 • 대구도시개발공사
LG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웨이 •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 금호피앤비화학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HLB • LX 인터내셔널 	한국콜마(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렉스특수물류 • 캠퍼시설관리 • 에스파워(주)
SK 하이닉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팬택씨앤아이 • 넥센타이어 • 동아쏘시오홀딩스 • HL 만도 •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콜마홀딩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LB • 코스글로벌 • 서울주택도시공사 • 팬택씨앤아이

[포스코인터내셔널]

4 월 25 일 포스코인터내셔널의 ESG 멘토링 미팅에서는 멘티사들이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의 ESG 평가 대응, 공급망 리스크 관리 현황 및 공시 대응 등의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기업의 방대한 ESG 활동 내용 중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포함할 내용을 선택하는 기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보고서 작성에 앞서 ESG 평가를 먼저 대응하며 평가에 부합하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는다면, 이후에는 작성된 보고서를 평가 증빙자료의 집합체로 활용할 수 있어 효율 측면에서 추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 기준과 공급망 실사 기준의 경우 기업의 지사와 법인을 공급망으로 생각하고 관리하면 공시와 공급망 관리의 교집합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ESG Ground Rule 을 설정하고 이행하는 것은 중요하며, 일례로, 공급망의 경우 리스크가 높은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하는 것 보다는 개선과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4 월 30 일 진행된 LG 디스플레이의 ESG 멘토링 세션에서는 먼저 LG 디스플레이의 ESG 현황에 대해 상세한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SG 거버넌스 체계, ESG 평가, ESG 추진 방향, ESG 공시 대응 등의 내용을 소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ESG 영역 별 추진 과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재생에너지 전환, △수자원,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 극대화, △유해 화학물질 미사용, △제품 개발 생산 소비 폐기 전 과정 친환경 제품 개발, △사업장 안전, △협력사 ESG 관리체계 구축 및 공급망 리스크 최소화, △다양성 포용성을 인정하는 선진 문화 조성, △이해관계자 소통 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에서는 내부 ESG 정보 시스템 소개, 경영진 KPI에 ESG 지표 도입 여부, 효율적인 ESG 의사결정 체계 수립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콜마]

5 월 3 일 한국콜마의 ESG 멘토링 미팅에서는 먼저 멘티사들의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이후, 한국콜마의 ESG 거버넌스 체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내용, 컨설팅회사의 ESG 지원,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공급망실사, UNGC COP 이행보고서 등의 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콜마의 ESG 거버넌스 체계는 CEO 직속 ESG 경영팀, ESG 위원회, ESG 실무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ESG 위원회의 경우 상하반기 연 2 회 회의를 개최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수립 전략 과제 및 진행 상황, 중대성 평가 결과 등을 보고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 여부가 현업 부서간 ESG 협조를 용이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UNGC CoP 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한국콜마의 ESG 관련 행사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보낸 뒤 미팅을 마쳤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1차 ESG 멘토링



한국콜마 1차 ESG 멘토링

[SK 하이닉스]

5 월 16 일에는 SK 하이닉스의 ESG 멘토링이 진행되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멘토링에서는 기후공시 관련 재무영향과 KSSB 공시기준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의 재무영향 식별 추진단계를 ①온실가스 배출량을 해외 사업장별로 산정, ②관련 활동과 연계된 재무제표 계정을 파악, ③계정별 금액의 중요성과 영향도 산출의 세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SK 하이닉스의 기후 재무 영향 식별 프로세스 중에 전환 리스크를 예시로 소개하며,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주제 하 세부 기후 이슈를 나누고, 각 이슈별 비즈니스 영향, 재무적 영향을 도출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SSB의 공시기준 초안 설명에서는 특히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를 관리하는 기업의 전략, 기후 대응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 및 목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미팅을 마무리했습니다.

[(주)두산]

5 월 23 일에는 ESG 담당자 역량강화, 리더십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ESG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에 대한 팀빌딩 세션을 진행한 후, 두산 그룹의 ESG 경영에 대한 소개와 함께 ESG 멘토링 세션을 시작하였습니다. 두산 그룹은 ESG 경영의 핵심기반으로 ESG 위원회를 구성하여 ESG 경영 과제를 관리하고 ESG 로드맵 점검, 논란 이슈 대응, 조직 간 협업 체계 강화 및 KPI 관리 등 ESG 위원회의 주요 역할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ESG 자문위원회를 통해 ESG 이행 점검, 개선사항 발굴, ESG 기회와 리스크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특히 사업부문 조직장과 일반임원 및 투자사 대표/임원을 대상으로 평가 10 점 중 4 점을 ESG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있다고 공유했습니다. 끝으로 멘티사들의 ESG 주요 현안 및 고민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콜마홀딩스]

5 월 28 일에는 콜마홀딩스의 ESG 멘토링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콜마홀딩스는 ESG 위원회를 통해 주요 관계사 ESG 전담부서와 정기적으로 ESG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분기 단위로 이슈 및 개선안을 도출하고 있는 ESG 경영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준법지원그룹 산하 컴플라이언스팀에 ESG 기능을 추가하여, 대표이사 직속 지속가능경영사무국을 신설한 배경을 설명하고 콜마홀딩스의 지속가능경영보서의 주요 내용인 △ESG 경영 접근법, △ESG 핵심 영역, △ESG 관리 이슈, △ESG 정책 및 데이터 등을 소개하고, 멘티사들이 ESG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첫 미팅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1차 ESG 멘토링



㈜두산 1차 ESG 멘토링



콜마홀딩스 1차 ESG 멘토링

[포스코이앤씨]

5월 28일 진행된 포스코이앤씨의 ESG 멘토링 세션에서는 먼저 포스코이앤씨가 ESG 현황에 대해 발표한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보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ESG 조직 체계, ESG 추진 방향, ESG 공시, ESG 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ESG 세부 이슈 중 먼저 환경에서는 △탄소중립 로드맵 구체화, △건설 현장의 물리적 리스크 예방, △폐기물 저감 및 자원 순환, △건설 현장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운영, △저탄소 자재 개발 등을 설명하였고, 사회에서는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공급망 인권 리스크 관리, △직원 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양성 협의체 다이버(DIBE) 운영 등을 발표하고, 거버넌스는 그린워싱 방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을 통해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티사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세션을 마쳤습니다.

[DRB 동일]

5월 31일에는 DRB 동일의 ESG 멘토링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DRB 동일은 먼저 지속가능경영방침, ESG 평가대응현황 등을 소개했습니다. DRB 동일은 ESG 추진 체계를 설명하며, ESG 위원회, ESG 분과위원회, ESG 실무추진 TF 등의 주요 역할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진 평가대응 현황 공유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총

34 건으로 ESG 평가를 점차 확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유럽 산림전용 방지 규정(EUDR), 생활임금, 공급망 관리 강화, 이사회 역할 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에코바디스(EcoVadis), SMETA(Sedex Members Ethical Trade Audit), 한국 ESG 기준원 등 주요 ESG 평가기관들의 대응 방법을 소개하며, 평가 지표, 평가 방법, 증빙 서류 제출 방법, 교육 및 참고자료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UNGC CoP 에 대한 보고 지표, 제출 방식, 문항 유형, 2024 년 업데이트 사항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세션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5 월 31 일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의 1 차 멘토링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경영 및 ESG 현황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오찬과 티타임을 진행한 이후, 지속가능보고서 및 ESG 전문가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특강은 지속가능경영 및 ESG 경영의 이해, ESG 각 분야별 주요 이슈,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의 필요성 및 프로세스, 우수사례, ESG 공시 규제 및 향후 발전방안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강 이후 멘토링 그룹은 2 개 멘티 기관의 지속가능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장점과 보완점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CJ 제일제당]

6 월 12 일 진행된 CJ 제일제당 ESG 멘토링 세션에서는 CJ 제일제당의 지속가능경영 소개, ESG 거버넌스 현황, ESG 추진사업, 대외평가, 기후변화대응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CJ 제일제당의 지속가능경영 지향점인 “NATURE TO NATURE CYCLE”를 4 가지 분야(원재료, 생산, 폐기, 소비)로 소개했습니다. CJ 제일제당은 식품, 바이오, F&C 의 세 사업 부문에 ESG 전략팀이 별도로 있어 부문별 부서 간 협업하고 전사적으로 ESG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으로는 △바이오 스팀으로 에너지 원가 절감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 △재활용, 재사용, 퇴비화 가능한 포장재 사용, △VIRGIN PLASTIC(최초 만든 플라스틱) 감소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질의응답에서는 ESG 정책 관련 CJ 지주사의 역할, 지속가능경영 추진 전략에 생물다양성 추가 여부, 온실가스 배출 검증 및 제 3 자 검증, 공시 시스템 및 공급망 관리 시스템 사용 여부, 탄소가격 책정, 인권 실사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포스코인앤씨 1차 ESG 멘토링



CJ제일제당 1차 ESG 멘토링



한국가스기술공사 1차 ESG 멘토링

금번 1 차 ESG 멘토링에서는 ESG 거버넌스 체계, ESG 평가 대응, 공급망 ESG 관리, ESG 공시 대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방법, ESG 과제 추진을 위한 내부 KPI 설정 등 공통적인 관심 현안이 제시되었으며, 멘토로부터 실질적인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ESG 공시 의무화가 비즈니스의 핵심 리스크로 자리잡게 되면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각 멘토 및 멘티 참여사 간에 형성되었습니다. 다음 2 차 ESG 멘토링은 7 월/8 월 중 진행 예정이며, 멘토링 참여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향후 멘토링에 관심있는 기업들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장한별 과장 (T. 070-4327-9768 /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본부소식

1.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 교수 대상 사회책임경영교육원칙(PRME) 상 수여



지난 6 월 18 일,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이니셔티브인 사회책임경영교육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Management Education, 이하 PRME)은 지속가능발전과 비즈니스 교육에서의 책임 있는 경영 관행 교육 관련 우수 성과를 거둔 미국, 브라질, 헝가리, 인도의 경영학과 교수들에게 2024 PRME 교수상을 수여했습니다.

* 사회책임경영교육원칙(PRME): 2007 년 출범한 유엔의 이니셔티브로 전 세계 교육기관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경영학도들의 미래 변화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기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전 세계 800 개 이상의 회원들이 함께 하는 자발적 이니셔티브인 PRME 는 유엔과 경영 고등교육기관 간 최대 규모의 협력체입니다.

이 상은 경영, 회계 및 재무, 마케팅, 운영 및 분석과 같은 다양한 경영학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등 영향력 있는 교육분야의 혁신을 도모한 교육자에게 수여되었습니다. PRME 이 협력을 맺고 있는 다양한 경영 고등교육기관 중 90 여개국 800 여개 기관에서 교수상에 지원하였습니다. 수많은 지원 프로그램은 창의성, 깊은 사고력,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자의 헌신과 노고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교수법을 선보였습니다.

PRME 이니셔티브 참여 교육기관의 학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는 SDGs 의 발전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역량 개발을 촉진하며, 학문 간 연계성을 확립하는 등 우수 교육 방식을 선보인 5 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심사 위원회는 PRME 의 Impactful Five(i5)* 교육법 프레임워크 목표와의 일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평가했습니다.

* Impactful Five (i5): PRME 는 (i5)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적’이고, ‘사회적’이며, ‘유의미’하고, ‘즐거우며’, ‘반복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방법을 통합하여 세계가 필요로 하는 미래의 리더 양성

PRME 의 수석 고문인 오미드 아스카리 (Omid Aschari) 박사는 "올해 제출된 프로그램은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교육에 지속가능발전을 접목하려는 교육자의 노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라며, "이러한 교육자들이 선보인 혁신적인 교수법과 프로젝트는 타인에게 영감을 주며, 탁월한 모범사례로서 새로운 획을 그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교수법 수상자들은 학생들의 학습 역량 및 개인적 성취를 이끌어낸 혁신성과 영향력을 선보인 기여도에 따라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자들은 몰입형 교육 경험 제공, 실무 적용, 반영적 실천(reflective practices)을 통합하는 등 전통적인 형태의 수업 방식을 넘어선 프로그램과 교수법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학생들이 성공적인 경력을 갖추는 것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 리더십, 지속가능성, 사회적 도전 과제에 대한 의미 있는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수상 프로그램들은 비판적 사고, 협업, 공감 능력 향상 등을 통해 학생들이 사려 깊고 책임감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영감을 제공하는 전환 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24 년 PRME 글로벌 비대면 행사에서 지속가능한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수상자 목록과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 및 재무: Lucy U. Diala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미국)

Lucy U. Diala 교수는 비즈니스 회계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관리자의 시각에서 사고하고, 팀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며, 비즈니스 회계 학습의 의미, 중요성과 시사점을 탐색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교수법을 구현했습니다.

2. 경영: Andrew Hoffman 미시간 대학교 로스 경영대학원(미국)

Andrew Hoffman 교수의 ‘관리자로서의 소명(Management as a Calling)’ 프로그램은 차별화된 몰입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반성하고, 명상하며,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개인적인 사명이 반영된 선언문을 작성합니다.

3. 경영: FGV EAESP*(브라질)

a. Fernanda Carreira

b. Ricardo Barretto

c. Mayara Souza

d. Julia Pacheco

e. Gabriela Alem

f. Marcio Halla

FGV EAESP 가 운영하는 ‘지속가능한 리더십: 열대우림의 관점에서(Sustainable Leadership: The Rainforest Perspective)’ 프로그램은 MBA 학생들을 아마존 열대우림 및 주변 지역에서 지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면서, 전통적인 리더십 모델을 벗어나 지역사회 상생 관광, 원주민의 존엄성, 대안적 경영 모델의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FGV EAESP(Escola de Administração de Empresas de São Paulo da Fundação Getulio Vargas):
1954 년에 설립된 브라질의 사립 고등 교육 기관

4. 마케팅: 부다페스트 코르비누스 대학교(헝가리)

- a. Katalin Ásványi
- b. Réka Matolay
- c. Márta Frigyik

부다페스트 코르비누스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 공동참여 연구 및 학습(Community-Engaged Research and Learning)' 프로그램은 학생, 교육자, 지역 이해관계자 간의 의미 있는 협력 촉진을 통해 상호이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공동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학문적 탐구와 사회적 수요를 모두 충족합니다.

5. 운영 및 분석: P Balasubramanyam, 고아(Goa) 경영연구소(인도)

고아(Goa) 경영연구소 P Balasubramanyam 박사의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마케팅과 고객 관리 등 중요 이슈를 다룰 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 지속가능성, 능동적 학습 등 전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상자들의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에는 몰입형 학습 프로그램, 혁신적인 사례 연구, 커리큘럼에 SDGs 를 통합한 사례, 커뮤니티 참여 학습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이론적 지식과 실제 적용 간의 간극을 좁히고,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하며, 공동지식을 통해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시상을 통해 교육자들의 우수한 성과 창출을 내기 위한 노력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학생 및 사회의 요구에 맞춘 혁신적인 교수법을 기리고자 합니다. 유의미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교수법을 육성하려는 교육자들의 노고는 i5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이상적인 실천 사례로서, 미래지향적 교육 방식 관련 높은 기준을 설정합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회원사 ESG 우수 사례



■ E(Environmental) ■ S(Social) ■ G(Governance)

1. 기업 소개

애큐온캐피탈은 2006년 12월 'KT 캐피탈' 사명으로 출범한 여신 전문 금융기업입니다. 리스금융, 할부금융, 기업금융, 투자금융, 개인사업자 금융 등 전체 사업영역에서 보다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실한 사업과 재무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애큐온캐피탈은 2016년 7월에 KT 캐피탈에서 애큐온캐피탈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애큐온(acuon)은 '정확한'을 의미하는 'accurate'와 '항상 켜져 있는 또는 준비되어 있는'을 의미하는 'on'이 결합된 말로, 고객의 필요에 정확히 응답하기 위해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HK 저축은행을 인수하고, 2017년 1월 두산캐피탈을 흡수합병 함으로써 더욱 경쟁력 있는 금융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애큐온캐피탈은 고객 가치와 윤리경영을 무엇보다 중시하며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금융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취급하며 오랜 기간 축적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의 포괄적 이익과 환경, 사회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며 함께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2. ESG 이행 전략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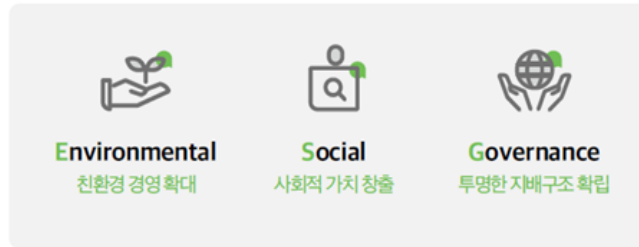
애큐온캐피탈은 '지속가능한 내일을 향한 금융'이라는 지속가능경영 비전에 더해, '오늘 내일의 금융을 만나다'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에도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일관되게 담아 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해 '친환경 경영 확대', '사회적 가치 창출', '투명한 지배 구조 확립'이라는 3대 전략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또, 이에 대한 9가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지속가능경영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체계]

비전

지속가능한 내일을 향한 금융

전략 방향



중점 과제

- 기후변화 대응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 지속가능경영 내재화
- 친환경 경영 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 기여
- ESG 리스크 통합관리
- 친환경 금융 확대
- 포용적 금융 확대
- 이해관계자 소통과 참여

[중점 과제 정의]

-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 사용 저감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 수립
- 친환경 경영 시스템 구축: 자원 사용 데이터 수집 및 지속 관리 시스템 구축, 환경성과 영향 평가 실시
- 친환경 금융 확대: 그린 파이낸싱 지원 사업 및 사회적책임투자채권 규모 확대를 통해 친환경 금융 환경 조성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고객 정보 및 정보 보안 관련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 소비자중심경영 체계 강화
- 지역사회 기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넘어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상생 협력 및 소통 강화
- 포용적 금융 확대: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금융 상품 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지속가능경영 내재화: 지속가능경영이 경영 전략과 실행에 반영되고 조직문화를 통해 활성화
- ESG 리스크 통합 관리: 기후 위기 등 비재무 요소를 통합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 이해관계자 소통과 참여: 지속가능경영 정보를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참여 유도 및 협력 강화

[ESG Governance]

애규온캐피탈은 지속가능경영 추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7월에는 지속가능경영 전담 부서인 ESG 경영팀을 신설하여 지속가능실무협의회와 함께 ESG 과제 이행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애규온저축은행과의 협업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사회 및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정책이 전담 부서인 ESG 경영팀과 지속가능경영실무협의회에 체계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경영실무협의회는 실행과제 이행과 과제 제안을 하며 ESG 경영팀을 통해 성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사례

가. 지속가능채권 발행

에큐온캐피탈은 2021년 2월 A 등급 캐피탈사 최초로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했으며, 이후 2023년까지 누적 3,500억원의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발행된 채권을 기반으로, 에큐온캐피탈은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운송수단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채권 발행을 통해 실현된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기여도를 '지속가능채권 투자자 안내문' 및 'ESG 채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채권 발행 누적 현황(단위: 억 원)]

발행연도	만기연도	채권명	발행금액	배분내역
2021	2024	에큐온캐피탈151-1	200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운송수단, 환경오염방지 및 관리, 취약계층 주택공급, 일자리 창출, 기초 인프라
		에큐온캐피탈151-2	500	
		에큐온캐피탈151-3	100	
		에큐온캐피탈151-4	600	
2022	2024	에큐온캐피탈164	250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운송수단, 환경오염방지 및 관리, 취약계층 주택공급 및 금융지원
	2023	에큐온캐피탈165-1	100	친환경 운송수단, 환경오염방지 및 관리, 친환경 프로세스, 취약계층 주택공급 및 금융지원
		에큐온캐피탈165-2	100	
	2024	에큐온캐피탈166-1	100	환경오염방지 및 관리, 친환경 운송수단, 취약계층 주택공급 및 금융지원
		에큐온캐피탈166-2	50	
		에큐온캐피탈167-1	100	환경오염방지 및 관리,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운송수단, 취약계층 주택공급, 기초 인프라, 취약계층 금융지원 및 금융지원
		에큐온캐피탈167-2	400	
		에큐온캐피탈167-3	200	
		에큐온캐피탈168	200	
	에큐온캐피탈169	200	신재생에너지, 환경오염방지 및 관리, 친환경 운송수단, 취약계층 주택공급 및 금융지원, 기업지배구조 개선	
에큐온캐피탈 제5회 기업어음증권	200			
2023	2024	에큐온캐피탈191	200	친환경 운송수단, 취약계층 금융지원, 기업지배구조 개선
합계			3,500	

나. Net Zero 선언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애큐온캐피탈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 대상 기업이 아님에도 2022년 5월 지속가능경영 선포식을 통해 '2040 Net Zero'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2023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BSI Group Korea로부터 업권 최초로 검증 성명서를 획득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해 GHG 프로토콜에 따라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Scope1은 사업장(고정연소) 및 이동연소(업무용 차량) 배출원의 연료 사용량을 기반으로 하였고, Scope2는 사업장의 전력 사용량에 기반하여 배출량을 측정했습니다. Scope3는 총 15개의 카테고리 중, 카테고리 1~14의 경우 GHG 프로토콜 방법론을 준용하여 카테고리별 대상 범위 및 산정 방법을 선택, 데이터 수집 및 가공하여 배출량을 산출했습니다. 사업 연관성과 데이터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1. 구매 제품 및 서비스, 2. 자본재, 3. 연료 및 에너지, 6. 임직원 출장, 7. 임직원 통근, 11. 판매 제품의 사용 등 6개 카테고리의 온실가스 배출원과 배출량을 산출했습니다. 또한 Scope3의 카테고리 15. 금융 배출량 산출을 위해 2023년 말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체 포트폴리오를 PCAF 기준 여섯 가지 자산군으로(상장주식 및 회사채, 기업대출 및 비상장주식, PF,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차량) 분류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계약건 별 정보(사업자등록번호, 표준산업분류코드, 표준산업분류코드명, 법인번호)와 함께 추가 필요한 정보의 경우 영업담당자를 통한 조사,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통한 데이터 취합 등의 작업을 거쳐 금융 배출량을 산출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업권 최초로 SBTi에 가입했습니다. 과학기반 감축목표 검증 및 승인을 위해 2024년 5월 SBTi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8월~11월경 검증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애큐온그룹 PCAF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PCAF 자산군	BS(백만 원)	온실가스 배출량(tCO ₂ e)
PCAF 1 상장주식 및 회사채	113,157	5,419
PCAF 2 비상장 및 기업대출	2,034,224	114,899
PCAF 3 프로젝트 파이낸스	814,297	20,250
PCAF 4 상업용부동산	198,494	6,341
PCAF 5 모기지	1,711,242	8,552
PCAF 6 자동차	94,150	16,782
PCAF기준 미해당 건	2,234,206	
합계	7,199,769	172,244

다. 사회적책임활동 선언

에큐온캐피탈은 2023년 CSR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의 의미를 재차 생각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을 단순한 지원의 개념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담아 '사회책임활동 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는 CSR Mission도 함께 선포하여 기존의 CSR Vision을 바탕으로 CSR 전략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CSR 미션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CSR 비전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핵심방향 및 주요CSR 프로그램



- 에너지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지원
- 에너지 취약계층 으뜸효율 밥솥 지원
- 부산 해양수변 수중 정화 활동

UN SDGs



- 지역아동센터 교육 물품 지원
- 1사1교 금융교실 및 장학금 지원
- 소아암환우돕기 서울시민마라톤대회
- 소아암환우돕기 행복트레일런축제
- 위탁 보호 청년 자립 비용 지원

UN SDGs



-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 재가 발달장애인 명절 음식 지원
- 발달장애인 문화 체험 지원
- 산업재해 피해자 치료비 지원

UN SDGs



4. SDGs 기여 목표 및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가. SDGs 기여 목표

애규온캐피탈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업 특성을 고려한 SDGs 를 수립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완화	장애인 기회 균등에 따라 장애인 고용 강화(2021년 2명 -> 2023년 3명), 전 임직원의 최저임금 보장, 신규 채용 시 여성 차별 철폐 및 기회 균등을 채용 원칙으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인재를 채용하고 있음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을 위한 사회책임활동 실시 (수해지역 긴급 복구 지원, 부산 수변·수중 환경 정화 활동, 위탁보호종료 청년 자립비용 지원)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기후행동	기후 위기 및 자연재해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약속으로 TCFD 선언, 기후 변화 관련 체계적 대응을 위해 SBTi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과학적감축 목표(SBT)를 수립하고 검증 진행 중
	해양 생태계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바다 및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 수변·수중 정화활동
	육상 생태계	육상 생태계를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등을 위한 사회책임 활동 실시(으뜸효율법률 교체 지원, 수해 지역 긴급복구 지원,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철폐를 위한 윤리경영 실천, 공정거래 자율 준수 지침 수립, 임직원 및 협력업체 윤리강령 준수, 이사회 독립성 준수를 위한 전체 이사 총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 다양성 준수를 위한 성별, 국적, 문화적 차이, 인종, 종교 선임 요건 배제 여성이사 1인 재임중,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금융, 경영, 글로벌리더십, 재무 및 회계, 리스크, 법률 등 각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보유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나.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이니셔티브	가입 시기
	2021.10
	2022.10 (업계 최초)
	2023.05 (업계 최초)
	2023.08
	2023.09

[자세히 보기](#)

UNGC 한국협회 & 회원사 뉴스

1. LG 유플러스, 재생에너지 전력 중개사업에 뛰어든다



- LG 유플러스는 스마트그린빌리지 및 한화시스템과 협력하여 가상발전소(VPP)와 직접전력 구매계약(PPA) 사업에 진출, 재생에너지 공급 문제 해결 및 전력 중개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 또한 VPP로 분산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IT 기술로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며, PPA를 통해 기업 고객에게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여 RE100 달성을 지원할 예정임.

뉴스트리

2. 코오롱인더스트리, 온실가스 배출량 10% 감축...대표가 나선 ESG



- 코오롱인더스트리가 ESG 활동 성과와 중장기 계획을 담은 '2023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며 지난해 폐기물 감량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대비 10%가량 줄였다고 밝힘.
- 또한 2047년까지 넷제로를 목표로 생산 공정에 △폐열스팀(폐기물 에너지)을 활용, △화석연료 대신 바이오가스 이용, △폐수 재사용량 확대,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

아시아투데이

3. 신세계백화점, 대기업 최초로 '입양 휴직' 제도 도입한다



- 신세계백화점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일·가정 양립 정책 일환으로써 '입양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할 경우 6개월간 무급 휴직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임.
-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해당 제도를 "입양 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정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입양 휴직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힘.

조선일보

4. LG 전자 차별·괴롭힘·강제노동 금지하는 인권 경영 강화



- LG 전자가 인권 관련 방침을 통합하고 UNGPs에 따른 인권 영향 평가의 주요 인권 영향 영역 7분야를 선정하는 등 인권 경영을 강화한 '인권 원칙'을 새롭게 제정하여 발표함.
- 이에 대해 LG 전자 관계자는 이번 원칙 제정을 계기로 이해관계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해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영향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한경비즈니스

5. CJ대한통운, 알루미늄 캔 자원순환 산림청과도 협력...ESG 보폭 확대



- CJ대한통운이 지난해부터 전국 22 개 국립공원에서 진행해 온 알루미늄 캔 자원순환사업의 시행 범위를 산림청 산하 산림휴양시설까지 확대할 예정임.
- 이를 통해 앞으로 2 년간 약 40 톤의 알루미늄 캔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대상 지역도 전국 160 여개 산림시설로 확대 후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갈 계획임.

데일리안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6월 19일부터 7월 16일까지 UNGC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5개사입니다.

- 무림페이퍼 주식회사
- 무림에스피 주식회사
- 무림피앤피 주식회사
- 태양정공(주)
- 스피치로그(주)

2. CoP/CoE 제출회원

6월 19일부터 7월 16일까지 25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CoE (총 2개)

- 환경실천연합회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CoP (총 23개)

- GS칼텍스(주)
- 교보증권(주)
- 롯데카드주식회사
- 삼성전자(주)
- 에스케이스퀘어주식회사
- 에이치엠엠(주)
-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 유니베라
- 인천도시공사
- 인피니티컨설팅주식회사
- (주)만도
- (주)신원
- (주)이노폴
- 주식회사 에스제이엠
- 주식회사 티아이피
-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 (주)신한은행
- (주)엘엑스판토스

- 코웨이(주)
- 한국석유공사
- 한국수력원자력(주)
- 한국투자금융지주
- 한미약품(주)

※ UNGC 회원사는 2024 년도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를 4 월 1 일부터 7 월 31 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원사 상태(status)가 “미보고(Non-communicating)”로 전환되며, 12 월 31 일 이내에 제출시 다시 “Active” 상태로 회복됩니다. 12 월 31 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25 년 1 월 1 일자로 “제명(Delisted)”되오니, 일정을 확인하시어 제출기한 내에 이행보고서(CoP)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회원은 기존 정책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내에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ed)”됩니다.

※ CoP/CoE 문의: 안성은 과장 (070-4327-9771)

3.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4. UNGC 한국협회 가입 안내

2007 년 9 월에 설립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다양한 심포지엄, 워크숍, 컨퍼런스 개최 및 기업 지속가능성/ESG 관련 연구·조사, 정책 제안, 네트워킹과 대화의 장 마련, ESG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하여 회원사의 유엔글로벌콤팩트 10 대 원칙 이행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